지옥의 평범한 청년, 사탄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사탄의 일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행을 하도록 만들어서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것인데, 이제는 인간들에게 굳이 죄를 부추기지 않아도 인간들이 알아서 상상도 할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인간들을 선하게 만들어야 할 신은 자기 일에는 관심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균형이 악행 쪽으로 쏠려서 사탄은 필요없는 존재가 될수밖에요.

심지어 최근에는 신의 아들이 직접 인간 세상에 재림하여 군대를 끌고 세상을 정화하려 한다는 소문마저 들리고 있으니, 사탄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곳인 지옥에 사는 존재인데, 그런 그의 분노가 하늘까지 닿았다는것은 정말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탄은 자신을 실업자로 만든 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직접 군대를 모아 신의 군대를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는 지옥의 무수한 고통받는 영혼들을 모아 전례없을정도로 강력한 군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불타는 군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죽은자들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자신과 같이 신에게 앙금을 가지고 있는 살게라스, 킬제덴, 아키몬드, 자락서스, 버줌 등등 온 세상의 사악한자들을 모아 지휘관으로 삼았으니, 지옥의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상으로 기어올라와 산자들의 도시를 불태우고, 온 세상이 비명소리로 가득차게 하며, 성지로 행군하여 신의 왕국을 영원히 무너뜨릴것입니다.

당신은 이 저주받은 군단을 지휘하고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는곳마다 피과 광기가 넘쳐흐를것입니다.

불태우고, 약탈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죽이십시오! 온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것입니다! 불타는 군단은 영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Then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Legion,” he replied, “for we are many.”)**

-마르코 복음서 5:9